

해양생물 주권확보를 통한 해양바이오 글로벌 연구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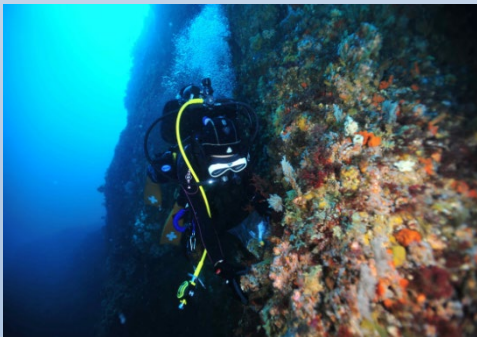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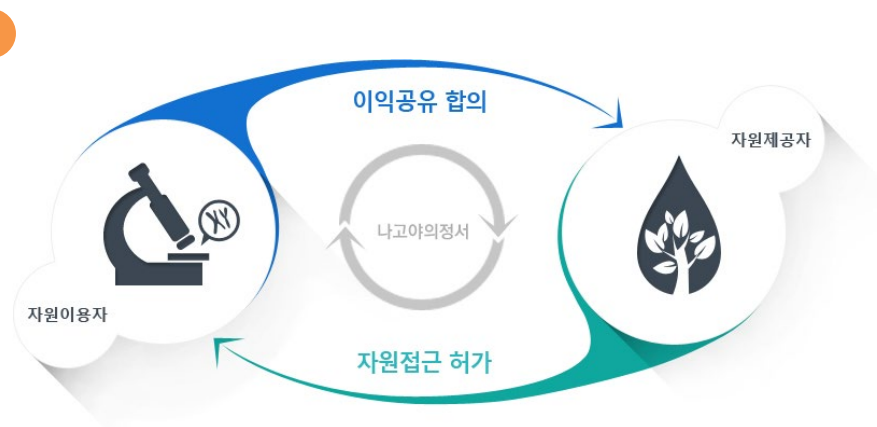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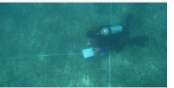
2022년 주요사업

I . 기 관 현 황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이오 경제 시대** 도래 전망



Occurrence records	Datasets	Publishing institutions	Species
964,321,890	37,614	1,143	Learn more about the number of species covered by data in GBIF.org
 Luxembourg upgrades GBIF membership 19 December 2017	 The future of ragweed: making more Europeans sneeze 4 December 2017	 GBIF Content Mobilization Priorities 2017 Current priorities for guiding investment and effort to digitize and mobilize biodiversity data	 Tanya Abrahamse elected chair of GBIF Governing Board 14 October 2017
 The GBIF network Dozens of countries and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to make species data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Learn all about data papers A data paper is a peer reviewed document describing a dataset, published in a peer reviewed journal.	 Top tips for the new GBIF.org Updates on new features (last updated 19 Oct 2017)	 Introduction to sampling-event data What is sampling-event data and why is it important?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따라 생명자원확보를 위한 국제경쟁 심화

해양생물자원 주권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대응 필요



해양생물 종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 증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관리 필요

➡ 국가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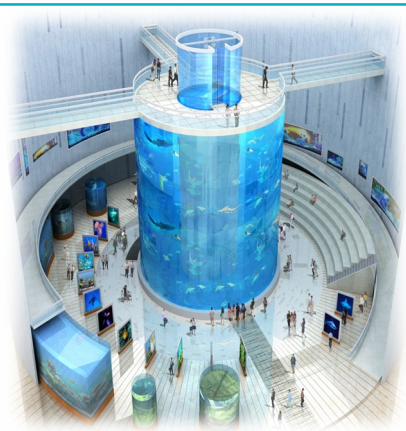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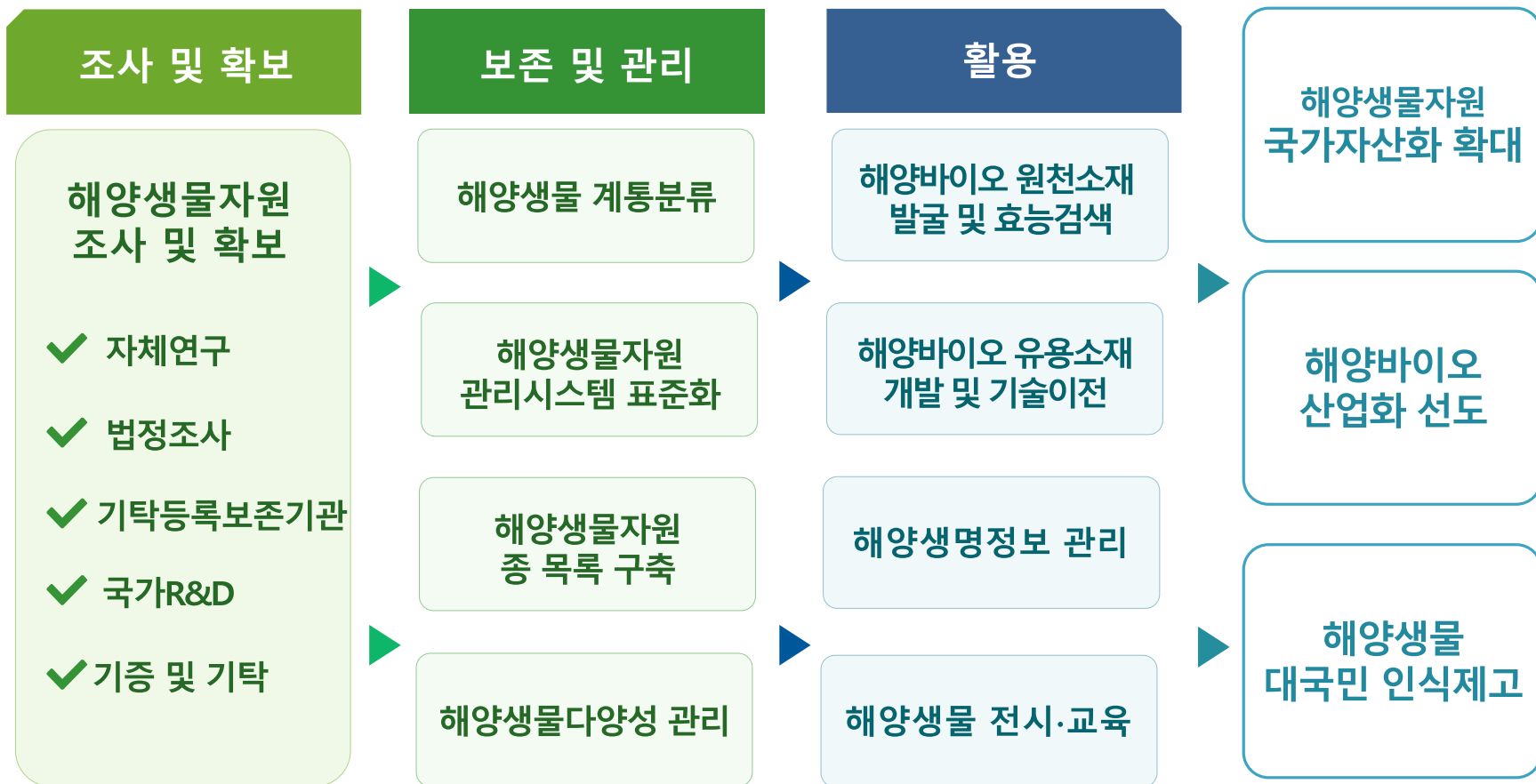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발전에 기여

주요업무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 해양생물자원의 전시 및 교육
-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등록·이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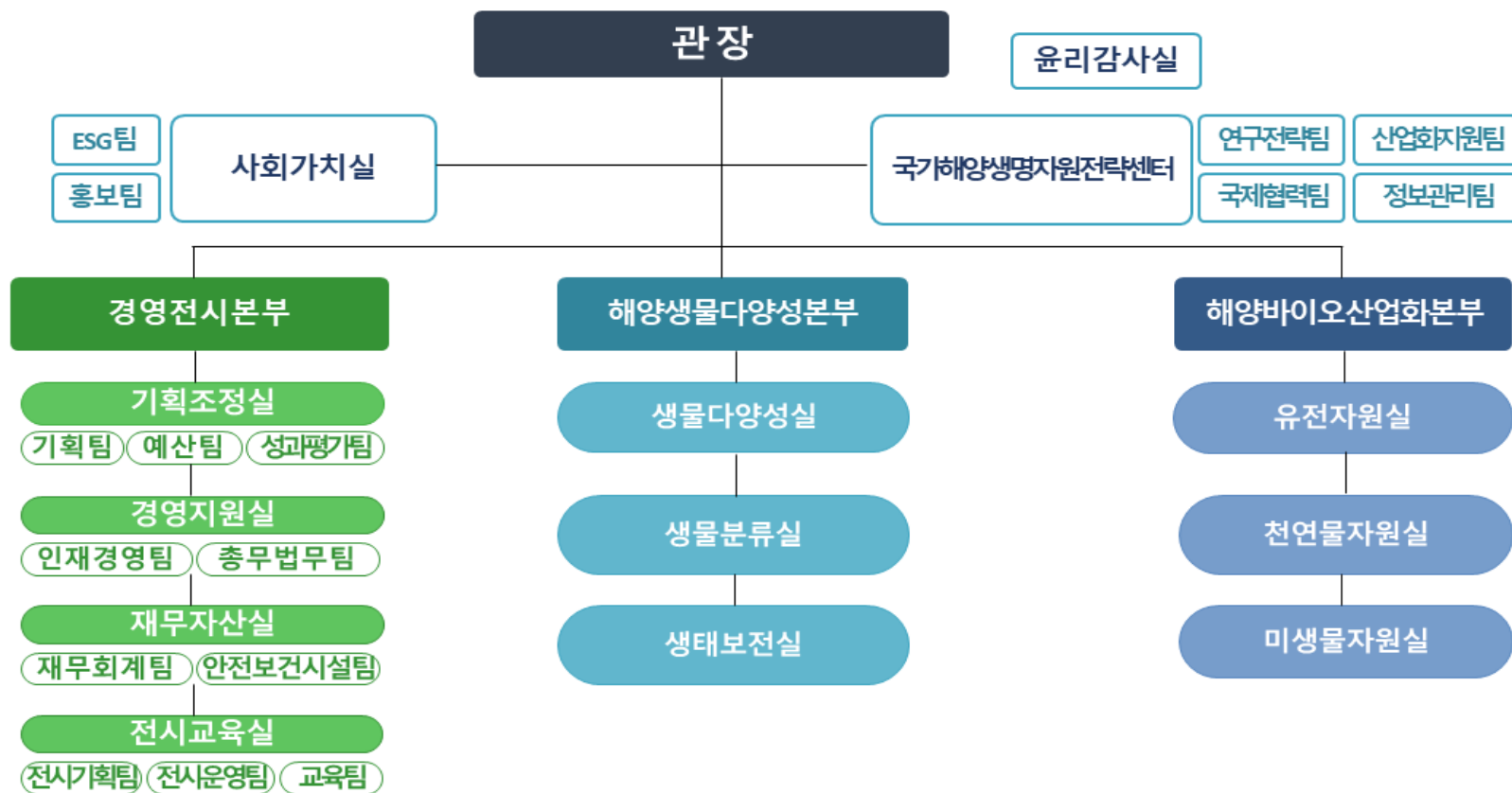


해양생물(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 '14.10.15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15.04.20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법인 설립 및 개관
- '16.02.03 ● 기타 공공기관 지정
- '16.03.18 ●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 '17.07.01 ● 생물다양성협약(CBD) 국가 연락기관 지정
- '19.12.31 ●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 현지 공동연구소 개소(1단계)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 '20.01.01 ● ABS 정보지원센터 설치
- '20.12.31 ● 해양바이오뱅크 공식 출범
- '21.11.15 ● 제3대 관장 취임
- '22.01.01 ● 종복원센터 건립 예산 확보 ('22.1 ~ '25.2, 약 373억원 경북 영덕)

3본부, 12실, 1센터, 16팀



구 분	계	임원	행정직	연구직	학예직	공무직
정 원	227	2	43	62	8	112

35,929백만원('22년 기준, 단위:백만원)



수입

정부출연금	29,967
자체수입	5,962
수탁연구사업 등	3,290
전시관입장료	367
교육수수료	34
이자 등 잡수익	109
전기잉여금	1,776
전전기잉여금	386



지출

16,143					
			13,773		
				3,454	
	1,735				
		520			
					304
연구 사업비	일반 사업비	특수 사업비	인건비	기관 운영비	예비비

대지면적 126,506.2천 m^2 , 건축연면적 33,597.69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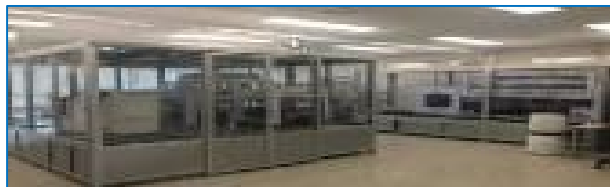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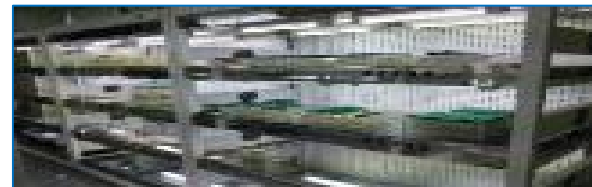
- 연구행정동 : 연구실험실, 수장고 등
- 씨큐리움 : 전시실, 4D 영상실, 교육실 등
- 교육동 : 대강당, 강의실 등
- 아리울관 : 직원 기숙사(21실), 기계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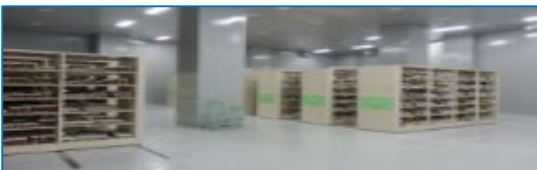
연구실험실



해양바이오뱅크



배양실



건조표본수장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I . 2022년도 주요사업



생물주권 및 활용과 연계한 해양생명자원 확보·관리 다변화

✓ 서식지 기초조사 및 국내·외 전략자원 확보

- 우리나라 해역의 체계적인 조사로 전략자원·정보 확보 및 효율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국내·외 협력 거점 구축·운영

전략자원 산업적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 확보

기탁기관 18개→20개(2개 기관 신규지정)

국내거점 동해, 서해, 남해, 제주권 분관설립

해외거점 코스타리카, 동티모르 등 거점 확대

✓ 해양생명자원 관리 역량 제고

- 수장연구동, 배양실 등 해양생물자원 관리 인프라 강화, 경제적 가치평가 및 통계조사 실시
 - 수장연구동 : 해양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존 및 분양, 산업화 지원에 특화된 독립적 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2.5~10, 2억)

✓ 해양생명자원 보전·복원 및 운영기반 마련

- 급감하는 해양생물자원과 서식처 보전·복원을 위해 정밀조사·서식실태 조사 및 전담 운영기반 건립 지원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 해양생물종 관리정책 수립 지원, 복원·증식연구, 해양동물 구조·치료·방류 등을 전담하는 종복원센터 건립 지원(22.1~25.2, 약 373억원, 경북 영덕)

해양바이오뱅크를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수요 기반 원천소재 확보 및 정보제공 다변화

- 분양률이 높은 원천소재 확보와 분양자원 및 제공서비스 확대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기능성 유용소재 및 기술 개발로 산업화 후보소재 발굴

- '21년 연구결과 중 효능이 있는 소재 대상 심화연구로 헬스·뷰티케어 활용 소재발굴



✓ 연구성과 확산 및 활성화 전주기 지원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참여기업 공모를 통한 공동협력 연구기반 마련 및 사업화 활용 체계 구축

- ① 맞춤형 특허관리
- ② 기업 참여형 연구
- ③ 연구장비 공동활용
- ④ 소통채널 다변화
- ⑤ 연구제도 개선

국민과 함께 공감·공존하는 해양생명자원 가치 공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가 즐겨찾는 씨큐리움 조성

- 씨큐리움을 방문한 관람객이 체험하고, 즐기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고객중심 씨큐리움 운영 및 해양생물 인식 제고

씨큐리움 리뉴얼 표본 위주 전시→디지털(VR, AR) 전시 매체 활용한 콘텐츠 리뉴얼(3억 2천, 용역)

메타버스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해양생물탐구대회〉



〈고객중심형 문화행사〉

✓ 글로벌 해양규범체제 전략적 대응 및 이행력 제고

- 해양생명자원 국제규범(BBNJ, ABS, CBD) 정책수립 대응 및 일반인 등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新국제규범(BBNJ)
대응전략 수립



CBD 해양연안생물다양성
국가 연락기관



ABS 역량제고 및 대응
해외자원활용방안모색

海保資究 洋主産强

